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11월 제261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첨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땀 흘려 만들어온 동문회보 쉽게 중단할 수 없다"

제89차 총동문이사회 모교 시청각실에서 열려, 현 집행부 복지부동 지적

총동문회 제89차 이사회가 11월 24일(수요일) 저녁 모교 시청각실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면으로만 개최되었던 이사회가 대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강신열 총동문회 집행부가 들어선 후에 발전기금 모금 등 제반활동이 부진하여 동문회 운영기금이 크게 부족한 비상사태 속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부의 안건으로 제1호 의안 '총동문회 회보발행 방안의 건'이 상정되고, 한흥교 사무총장이 안건 설명에 나섰다. 한흥교 사무총장은 준비한 자료 '충기총동문회 설송회보 발행 기획안'을 참석 동문들에게 배부한 후 설명에 들어갔다. 한 총장은 "설송회보를 발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터넷신문이나 밴드를 통해 동문소식을 전하면 비용이 연간 6천만원~7천만원 정도 줄어든다"며 "충기총동문회보는 1999년에 창간하여 2021년 현재까지 260회를 발간했고, 총 비용은 15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회보 단축 비용으로 각 모임 지원과 복지사업, 봉사활동 등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은 "그동안 선배들이 땀 흘려 이루어놓은 동문회보 설송소식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송주영 고문(1회)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은 "종전처럼 모금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동문회보를 중단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광시 이사(13회)는 "현집행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한 달에 한번 임원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능력이 없으면 아랫기수로 넘겨야 한다. 이사회 개최 공문도 5일 전에 받았는데, 최소한 10일 전에는 받아봐야 되는게 아닌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제89차 총동문이사회가 11월 24일 모교 시청각실에서 열려 동문회보 발행에 대해 논의했다.

전종현 총동문회 고문은 준비한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코로나 상황인 지난해 박대용 17대 총동문회장 때에 비해 44%의 기금이 덜 걷혔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한창원 이사(12회)는 "아무리 어렵다고 5천여 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주현 이사(10회. 기성동문회장)는 "기별과 지역 동문회를 합치면 60여개나 되는데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았는가. 협조를 구하면 되지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열표 테크노충우회 총무는 "작년에 테크노충우회에서 2천만원 정도 모교 및 동문회에 전달했다.

그런데 신집행부가 등장 후 재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감사들이 잘 지켜보아야 한다. 현집행부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윤대진 고문(5회)은 "총동문회장 자리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나는 자리다. 등 떠밀려서 강 회장도 맡은 것 같다. 동문회보는 1999년 3월 심상정 회장 때 창간해 내년 3월이면 23년이 된다. 그 당시 임용호 회장과 고인이 된 전경식 동문이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많이 수고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소 파악이 안 되며 동문회보 부수가 줄어들고 있다. IT시대에 후배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문회보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홈페이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앞으로 동문회보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현 총동문회고문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와 질의하고 있다.

이장수 자문위원(8회)은 "지금 우리 동문회 1년 예산 1억 2천만원 중 6천만~7천만원을 쓰고 나면 돈이 없다.(참고 ; 2021년 수입 예산 2억 7천300만원, 그 중 회보 발간비 7천만원으로 예산안의 26% 차지) 우리 동문회가 회보 만드는 동문회인가? 나는 동문회보를 잘 안 본다. 밴드 등 인터넷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원 이사(21회)는 "오늘 논의하는 안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라이온스클럽 회원인데 회장은 수입과 지출에서 결손이 생기면 회장 책임하에 집행부에서 보충한다. 동문회 운영에 관해서는 회장이 책임져야 하고 책임 못 지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장이라면 그 권한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준 21회 동문회장은 "현재 동문회의 최고 큰 문제는 두 패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현실을 투명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 시급한 일이 26회 이하 후배 동문회 조직 구성이다. (참고 ; 이윤학 회장 때 2만 5천부 신문발송을 1만부로 줄이면서 26회 이하 후배 주소 사라짐) 모두 반성하고 앞으로 편 가르지 말고 서로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좋은 고견 많이 들었다. 동문회보는 월간으로 지속하고 발전적으로 노력하겠다. 기수별 지역별로 모금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을 찾겠다. 동문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동문회보는 한 달에 한 번 받아보는 고향의 향기 나는 편지”

〈총동문회에 대한 나의 사랑〉 전종현 고문(15대 총동문회장) 기고

“솔로몬 지혜 발휘하여 모두에게 박수받으며 마무리 하기를”

1996년부터 1회 심상정 선배님이 어렵게 유지해왔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는 2000년 임용호(4회) 선배님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재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무실조차 없던 동문회에 본인 회사에 자리를 마련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동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희목(4회) 사무총장님과 이우정 고문님(3회) 등 선배들이 힘을 합해, 휴대폰이나 밴드 등이 전혀 없었던 시절, 총동문회보를 창간했습니다.

당시 학교와 경찰청 동문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전국 동문 주소를 파악하여 지금보다 부수가 많은 2만 여부의 회보를 대부분 자비를 들여 동문들에게 모교와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총동문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스런 선배님들의 노력은 2006년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지속되었고, 그 뒤부터는 임원들에게 분담금 등을 내게 하고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적은 회보비 등을 바탕으로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유지되었던 동문회보는 2010년 이후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총동문회는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이 다져놓은 기틀 속에 전임 집행부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이월 받은 14대 임세환 회장님은 발로 뛰면서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축적하여 후대 회장에게 이월시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이후 장학기금도 3억 5천만 원을 모았고, 이월 운영기금도 1억 원 이상씩 후배 회장에게 인계하면서 꼭 큰 기업이나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후배 간에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면 누구든 총동문회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물론 신임 회장이 취임할 때는 이런저런 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까지 역대 회장님들이 슬기롭게 잡음을 잠재우며, 비토하는 동문이나 적극 협조하는 동문이나 두루 아우르며 전국 어느 고교 동문회보다 자랑스런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2020년 16대 박대용 회장님 때에는 자발적으로 기탁된 발전기금이 2019년에는 1억8천161만7,749원의 발전기금 등이 접수되어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치르고도 3000만원이 넘는 잉여기금을 이월시킬 수 있도록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모든 모임이 중단되면서 동문회보나 친구들을 통해 동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발전기금 기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기금 확보의 가장 큰 행사인 동문체육대회마저 열지 못해 위축된 동문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17대 박대용 회장 때 5월~10월 사이에 발전기금 기탁금도 월 평균 734만5100원까지 떨어지며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 강신열 18대 회장 때는 2020년 5~10월 동 기간에 월 평균 410만1728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4%가 감소되어 운영이 가중되자, 전체 동문회 예산 비중이 큰 동문회보를 중단하거나 계간, 연보, 밴드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문회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의견 중에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 그 효과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동문도 있다하나,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까지 이끌어 온 총동문회의 저력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초창기 동문회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동문도 많이 있다는 것을 현 집행부가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향후 동문회보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일방적으로 할 경우 과거 사례를 보아도 총동문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총동문회보 대체가 가능하다고 많은 동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임회장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에 있는 동문들은 가까이 학교도 있고, 정기총회나 이사회나 조금 성의를 가지면 참석할 수 있지만, 전국 각지 타향에서 사는 동문들은 대부분 동문회보에서 전해주는 모교 소식과 동문소식을 보고 회보비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 때문에, 각 지역 동문들은 총동문회 회보발행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 지난 10년 넘는 기간에 동문회장이 솔선수범하고 신뢰를 받을 때 동문회보를 발행하고도 년 3천만 원 이상 흑자잉여기금을 이월시킬 수 있었던 선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문회보 지로용지 2만원은 총동문회 기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그 2만원에 담긴 모교사랑 의지를 소중히 새겨야 합니다. 전국 각지의 동문들은 자랑스런 충남기계공고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며 한결같은 애증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동문회보는 객지 타향에서 한 달에 한 번 받아보는 고향의 향기가 나는 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항상 모임의 리더나 회장은 어렵습니다. 3만4천23명 동문의 역사와 전통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모두에게 박수와 환호 받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18대 동문회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동문회보가 없으면 후원도 끊기고 동문회가 유지 안 됩니다!”

임용호 8·9·10대 총동문회장 전화로 당부 말씀

최근 강신열 총동문회 집행부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동문회보 설송소식 휴간 안건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용호 전 총동문회장(4회)이 전화를 통해 우려와 걱정을 전했다. 임용호 전 총동문회장은 8대, 9대, 10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회 발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이다. 총동문회장 시절 대전전기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내에 총동문회 사무실을 제공하고 전 동문들의 주소를 파악하여 2만5천 여 동문에게 회보를 발송했다. 이후 전국 동문들의 호응이 좋아 동문회가 탄탄하게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다. 임용호 선배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게재해본다.

<편집자 주>

“동문회보가 없으면 동문회가 유지가 안 돼요.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2만 5천부 발행하던 것이 후임 윤대진 회장 인가, 이윤학 회장 때인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수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이후 그만큼 동문회 활동이 위축됐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큰 부자도 없고 크게 출세한 사람도 없어요. 후임 회장 때에도 인터넷신문 만든다고 하다가 3천만원 정도를 날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밴드로는 동문회 역사와 전통을 자료로 남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신문이나 밴드는 찾아 들어가 보기도 힘들고 언젠가 지워지기 때문에 자료측면

에서 인쇄활자의 장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아보는 동문회보는 쭉 한번 훑어보고 스크랩할 수도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동문회보가 없으면 소식도 끊기고 발전기금 후원도 끊깁니다. 결국 동문회 활동이 쪼그라듭니다. 대전의 유수한 인문계 학교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고생하면서 현재까지 유지해온 동문회보를 하루아침에 돈이 없다고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든 발전기금을 거두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예산을 줄이다 보면 돈이 없어 마침내는 동문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마나한 동문회가 되고 맙니다. 아무쪼록 후배들이 총동문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12월 11일(토요일) 저녁 개최한다”

강웅규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회 준비 분주, “코로나상황 맞게 행사 준비”

26회동문회(회장 강웅규)는 전통행사인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12월 11일(토요일) 저녁 6시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2층 라임홀에서 개최한다.

강웅규 26회동문회장 겸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은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는 일생에 한번 있는 뜻 깊은 행사로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선후배의 격려와 동기 친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웅규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계룡시의회 부의장)은 “저희 26회 졸업생들이 모교 졸업 30주년기념행사로 멋진 인생의 한 페이지 추억을 남기는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은사님과 선후배 동문님들을 모시고자 한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모교의 전통 행사를 잇기 위해 신경을 써주신 총동문회와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천명의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고 25회 친구들이 은사님을 모시고 30년 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행사에 26회 친구들이 많이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연락처 = 이진서 홍보담당
(전화 010-3303-5014)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강웅규 ▲사무국장 김흥순 ▲재무국장 이진도 ▲조직국장 권경중 ▲홍보국장 이진서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9003-2670-9273-2 이진도(재무국장)>

– 신도성 편집위원 –

강웅규 26회졸업30주년추진위원장이 지난해 25회로부터 졸업30주년행사 기념기를 인수받았다.

“26회졸업30주년 추진위원회 발대식”

총동문회에서 격려금 100만원 전달

26회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강웅규) 발대식이 11월 11일 저녁 7시 모교 32회 김태용 동문이 운영하는 양탄가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26회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과 김흥순 사무국장, 이진도 재무국장, 권경중 조직국장, 문영희 수석부회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발대식에는 총동문회 백채준 선임부회장과 한흥교 사무총장, 이진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백채준 선임부회장은 강신열 총동문회장을 대신하여 총동문회 격려금 100만원(지난해 25회 행사 때 30만원 지급)을 전달했다.

강웅규 26회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문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동기 친구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30주년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반백의 나이 30년 세월 추억 공유합니다”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초대 글

보고 싶은 26회 충기 친구들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세월은 흘러 어느새 고교를 졸업하고 강산이 세 번 변하여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든 반백의 친구들이 마냥 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모교 동문회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 26회 졸업 30주년기념행사를 우리 동기 친구들이 힘들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은사님과 동문 선후배님들을 모시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에서 26회 동문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70중반을 바라보는 1회 선배님들과 올해 56회 졸업 후배들의 중간 위치에서 동문회 활동의 기둥역할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공자님은 나이 오십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 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26회 친구들은 고교 졸업 후 30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지천명 나이에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26회 동문 친구들과 졸업30주년 기념행사로 추억을 쌓는 행사를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세월 따라 걸어온 길 멀지는 않았어도 돌아보니 자욱마다 사연도 많았다는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난날을 돌아보는 추억의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친구들이여, 만사 제쳐 두고 26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아울러 동문 선후배님들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강웅규 26회졸업30주년 추진위원장 올림

“총동문회가 잘 운영되려면 동문들 협조가 필수”

발전기금 납부현황(2014~2021년), 2만원 이상 납부 2,057명
1위 전종현 2위 최동준 3위 임세환 4위 박대용 5위 이언구 8위 임재엽상사 부모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간 8쪽 신문을 발행하는 고교동문회는 우리 충남기계공고 동문회가 유일하다. 이번 11월호로 261호를 발행하는 기록을 세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설송소식 동문회보는 선배들이 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역사에서 보듯이 어느 분야든 기록을 세우기는 험난하고 어렵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기록이 깨지고 망하기는 쉽다. 삶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 한 명의 존재가 어느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우리 총동문회도 그동안 두 번의 큰 재무 사고와 소소한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문회가 건재하고 동문회보를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총동문회장들과 말없이 솔선수범한 17대 박대용 회장의 공이 컸다.

올해 18대 총동문회가 등장하면서 총동문체육대회도 못 열고 발전기금 모금 활동도 부진하여 동문회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3만4천 여 동문 중에 동문회보를 받아보는 동문은 1만 명 가량이다. 컴퓨터에 입력된 2014년부터 2021년 올해 10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2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한 동문은 모두 2,057명에 달한다. 참고로 1위부터 100위까지 동문들의 순위를 게재해본다. <도표 참조>

2014년 이전 자료는 인쇄된 정기총회 자료에 나와 있다. 그중에 임용호 전 총동문회장은 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억대가 넘는 돈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기타 선배님들의 발전기부 액수도 상당히 많아 추후 집계할 계획이다. 또한 물품으로 체육대회 등을 통해 기부한 동문도 많다. 학교승합버스를 기부한 이언구 동문을 비롯해 모교 발전과 동문회에 기여한 동문이 많아 자랑스럽다.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여하고 있는 동문은 이언구 동문의 청암장학회, 이중선 동문의 기룡장학금, 테크노충우회 장학금, 기능부후원회 장학금 등이 있다.

발전기금 납부에서 1위를 기록한 전종현 전 총동문회장은 모교 ‘기능인은 조국근대화의 기수’탑 복원비 7천만원을 비롯해 전국고교동창 골프대회 등 각종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억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보인다.

총동문회가 잘 운영되려면 일단 돈이 걷혀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시간을 내어 일하는 임원들은 돈이 없으면 화합하면서 능력껏 일하면 된다. 나라나 가정이나 종친회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특히 동문회는 선후배 간에 인사를 잘 해야 하고 훈훈한 소통의 기운이 돌아야 한다. 지금까지 협조한 동문들이 매우 고맙다.

총동문회 발전기금 납부 내역

(2014년 1월부터~2021년 10월까지))

순위	과	회수	성 명	금 액
1	기	12	전종현	74,358,000
2	기	21	최동준	23,770,000
3	전	9	임세환	22,450,000
4	기	16	박대용	18,890,000
5	기	16	이언구	13,200,000
6	자	10	김창길	12,100,000
7	기	18	장영우	11,650,000
8	기	38	故임재엽상사부모	10,200,000
9	기	13	송재길	9,938,000
10	기	16	조성민	9,900,000
11	전	36	이중선	9,750,000
12	기	19	최이석	8,850,000
13	전	9	최경일	7,900,000
14	기	13	백두현	7,240,000
15	금	18	유병각	6,700,000
16	기	21	진춘식	6,700,000
17	기	18	박종용	6,650,000
18	자	9	장덕영	6,300,000
19	전	12	한영식	6,030,000
20	전	21	오주철	5,820,000
21	기	22	이보윤	5,620,000
22	기	18	장영옥	5,000,000
23	전	3	이우정	4,890,000
24	기	14	임화섭	4,730,000
25	방	12	윤창석	4,430,000
26	기	15	조현기	4,420,000
27	전	4	故 박희목	4,240,000
28	전	3	이종욱	4,220,000
29	상	1	오응수	4,130,000
30	전	18	마수용	4,060,000
31	전	13	정성태	4,040,000
32	기	12	라기원	3,920,000
33	화	14	윤재중	3,840,000
34	전	22	김종천	3,570,000
35	전	16	김희곤	3,470,000
36	전	16	한흥교	3,470,000
37	전	11	오연진	3,450,000
38	기	14	이용선	3,400,000
39	광	8	김월배	3,350,000
40	화	8	이장수	3,230,000
41	기	15	윤창남	3,000,000
42	기	17	최성기	3,000,000
43	전	8	임헌표	2,990,000
44	기	23	홍열표	2,980,000
45	기	14	박수범	2,890,000
46	방	5	윤대진	2,850,000
47	기	16	백홍기	2,800,000
48	기	17	최덕호	2,800,000
49	기	14	김교신	2,760,000
50	기	16	윤석길	2,760,000
51	전	13	황학순	2,750,000
52	광	10	윤여갑	2,740,000
53	광	9	신승수	2,720,000
54	금	16	이재열	2,720,000
55	기	10	김용남	2,700,000
56	기	20	김재목	2,620,000
57	기	18	정창희	2,600,000
58	방	1	백운길	2,560,000
59	기	33	전우창	2,550,000
60	방	12	오세구	2,540,000
61	기	17	이종우	2,528,000
62	기	31	권오진	2,520,000
63	전	8	이재범	2,520,000
64	기	15	전재홍	2,520,000
65	기	26	문영희	2,500,000
66	화	8	이원승	2,500,000
67	기	14	강신열	2,470,000
68	전	9	김기수	2,400,000
69	전	7	김희문	2,340,000
70	전	16	이상돈	2,330,000
71	기	16	김용범	2,190,000
72	방	12	박진구	2,100,000
73	화	9	류일녕	2,050,000
74	전	6	이윤학	2,020,000
75	기	21	이현철	2,020,000
76	자	1	송주영	2,010,000
77	기	21	이상호	2,010,000
78	기	22	박정진	2,000,000
79	전	23	안병철	2,000,000
80	광	12	송진만	1,870,000
81	광	3	서한수	1,800,000
82	전	8	유상준	1,800,000
83	전	6	윤여봉	1,770,000
84	화	15	정영환	1,770,000
85	전	4	임용호	1,740,000
86	기	12	강희창	1,650,000
87	방	4	백범규	1,620,000
88	기	21	한석원	1,600,000
89	기	23	김영호	1,520,000
90	방	10	정구창	1,520,000
91	기	17	민운기	1,500,000
92	전	8	성민용	1,500,000
93	기	12	안중산	1,500,000
94	화	9	이종만	1,500,000
95	기	12	정종현	1,500,000
96	전	8	이정식	1,470,000
97	전	5	김흥년	1,460,000
98	기	23	최병무	1,460,000
99	기	8	신도성	1,440,000
100	방	4	송석범	1,420,000
100	기	12	정찬목	1,420,000
100	기	14	송수헌	1,420,000

"순남준 친구와 아산 배방역에서 15년만에 해후했다"

1회 광산과 조남간 · 홍남기 동문, 동문회보 통해 연락처 찾아

<속보>=동문회보 설송소식 21년 10월호(통산 260호)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11월 17일 조남간, 홍남기 동문이 아산에 거주하는 친구 순남준 동문과 해후했다.

10월호 7면 기사에 15년 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순남준 동문이 발전기금을 냈다는 소식을 보고 광산과 1회 이기선, 홍남기, 조남간 선배님이 10월 28일 총동문회 사무실을 찾아와, 전화번호를 알아갔고, 이후 통화가 되어 만나게 된 것이다.

광산과 1회 모임인 충심회(회장 이기선, 총무 나무찬)는 2000년대 초 까지만 하더라도 전국모임이 잘 열렸고, 지난 2004년 계룡산에서 전국 모임을 가질 때만 해도 50여 명이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연락이 두절되는 친구들이 늘어 현재는 26명의 회원이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시대 이전엔 월 1회 모임을 가졌다.

이기선 충심회 회장은 일이 있어 동행하지 못 하고 대전에서 "모교 학생시절 순남준, 조남간, 강남선, 홍남기까지 4남이라고 하여 무척 친하게 지냈다" 며 아산에서의 세 친구의 만남을 알려왔다. 11월 17일 경북 경주에 사는 조남간 선배와 충북 옥천에 사는 홍남기 선배는 같이 기차를 타고 아산배방역에서 12시에 미리 나와 있던 순남준 선배와 반갑게 만났다. 그리고 이른바 4총사의 하나인 강남선 선배(강원도 춘천 거주)와는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눴다. 마침 점심무렵이라 세 친구는 아산 배방역 앞 예산곱창식당에서 점심과 함께 소주를 반주로 그동안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조남간, 홍남기 동문(왼쪽부터)이 순남준 동문(오른쪽)과 건배하고 있다.

아산시 배방읍에 사는 순남준 선배는 "동문회보에 연 2만원의 발전기금을 꼭 납부하고 있다"며 "동문회보를 보고 연락이 두절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에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충남 아산까지 온 조남간 동문은 "타향에서 바쁘게 살다보면 전화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며 "동문회보의 소중함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방직과 9회청심회 매년 전회원 총동문발전기금 자진 납부

코로나로 오랜만에 열린 모임 솔선수범 "어려울수록 모두 협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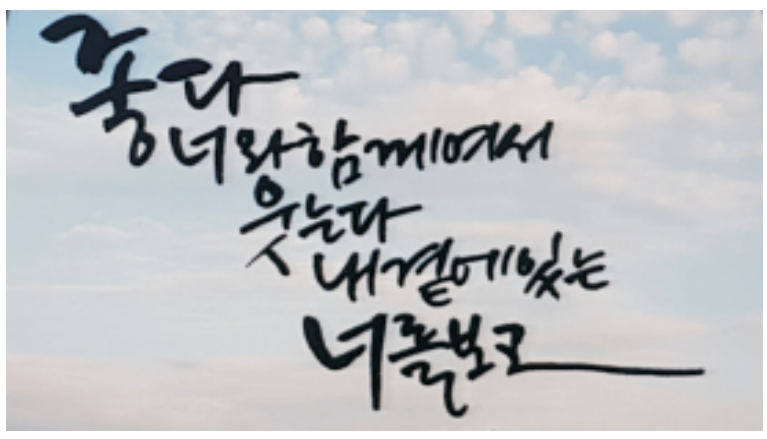
"총동문회보 발행과 운영에 비협조적인 동문들이 있는 것 같아 일부러 동기 유발시키려고 매년 전 회원이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직과9회 동기들의 모임인 청심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월례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매월 정기모임을 중단했다가 14개월 만에 11월 13일 저녁 유천동 백암골흑염소식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회포를 풀었다. 청심회는 이날 참석한 12명이 발전기금 2만원을 거두어 총동문회 계좌로 납부했다.

김순규 청심회장은 "요즘 총동문회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동문회보 설송소식은 우리 동문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데 크게 기여한 만큼, 다소 어렵다라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동문회보를 계속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서윤덕 시인의 (친구)



"코로나 곧 극복 희망, 참고 기다리자"

기성동문회 11월 모임 18명 우의 나눠

기성동문회(회장 안주현.10회)는 11월 17일 저녁 기성동 흑석한우촌 식당에서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과 송석구 1회 선배 등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열었다.

기성동문회는 만 40세 이상으로 기성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동문을 대상으로 회원을 가입시켜 활발한 모임을 벌이고 있다. 기성면 지역은 특히 충기졸업생이 많은 지역으로 1회 송주영 선배와 송석구 선배를 비롯해 최근까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20회 이경수 동문(전기과 졸업)이 기성동으로 이사오면서 신입회원으로 입회하여 환영과 함께 박수를 받았다.

송주영 총동문회 고문은 "코로나로 인해 충기총동문체육대회가 올해도 연기되는 등 동문회 행사가 크게 위축되고 운영마저 힘들어졌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모든 동문들이 적극 협조하여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김용협 기성동문회 총무(19회)–

"우수한 신입생 모집 위해 70여 명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모교 2022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 226명 합격

모교 운동장 잔디공사가 45일간 기간을 거쳐 11월 22일 말끔하게 시공됐다.

모교 2022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이 11월 19일 서류면접으로 치러져 226명이 최종합격했다. 모교 특별전형은 학과별 총점 상위 순으로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했다. 또한 지원 희망학과에 의하여 내신성적과 심층면접의 합계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했다.

학과별 최종합격자는 CNC선반과 32명, CNC밀링과 32명, 산업설비과 32명, 금형과 32명, 기계설계과 32명, 전기과 33명, 스마트팩토리과 33명 등 226명으로 전체 내신평균 80.433점이다. 이밖에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CNC선반과 4명, CNC밀링과 4명, 산업설비과 4명, 금형과 4명, 기계설계과 4명, 전기과 3명, 스마트팩토리과 3명 등 26명이 남아 있다. 정재균 교무부장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7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했다"며 "학과가 대폭 개편되는 내년에는 더욱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정찬목 편집위원(모교 교사.12회) –

모교 축구팀이 11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새 잔디구장에서 연습하고 있다.

모교 운동장에 최신 인조잔디 깔렸다

오래 사용으로 폐기, 최근 완공

모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공사가 10월 중순부터 시공되어 11월 22일 완공됐다.

모교 축구팀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운동장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모교에서 열려 경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후 수명을 다 했다.

새로 깔린 인조잔디는 최신 친환경 무공해 제품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

여태덕 교사 감사패, 이상규 교사에게 격려금

기능부후원회 24일 모교 교장실에서

모교기능부후원회는 여태덕 교사와 이상규 교사에게 기념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모교 기능부후원회(회장 전종현 부회장 최동준)는 11월 24일 오후 4시 모교 교장실에서 여태덕 교사에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모교 후배들이 많은 메달을 획득시킨 공로에 대해 감사패와 순금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또한 올해 모교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모교 선수가 은메달을 따도록 지도한 이상규 교사에게 격려금 70만원을 전달했다.

여태덕 교사는 34년 간 교직 생활(충남기계공고 재직 28년 6개월)을 마치고 올 8월 말일로 정년한 후 모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여 교사는 특히 모교에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주조직종 지도교사를 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1위) 2개, 은(2위) 1개, 동(3위) 1개를 획득하였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보석가공, 귀금속공예 직종 지도교사를 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1위) 1개, 은(2위) 5개, 동(3위) 2개, 4위 다수 등을 획득하여 훌륭한 기능인을 배출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자동차과동문회 2년만에 모임

"과별 동문회로는 처음 기지개"

자동차과동문회가 과별동문회로는 처음으로 기지개를 켜고 모임을 가졌다.

자동차과동문회(회장 이재진. 7회, 총무 정기원 8회)는 과별 동문회로는 처음으로 기지개를 켜고 2년 만에 모임을 가졌다.

자동차과동문회(일명 자형회)는 2019년 12월 송년회를 가진 이후에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동안 모임을 못 하다가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11월 18일 저녁 6시 30분 대전 서구 용문동 충무할매낙지식당에서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후배 동문이 만나 즐겁게 담소를 나눴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1회 송주영, 심상정, 이희광 선배를 비롯해 2회 김선기, 유영흥 4회 남득, 이희진 6회 최재인, 7회 이재진, 8회 조해욱, 김성권, 김재철, 도기범, 방의홍, 이광민, 정기원 9회 김상현, 백보흠 11회 강재구 12회 김용규 동문이다.

이재진 자동차과동문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지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날이 돌아올 것"이라며 "건강을 잘 유지하여 모교 동문행사에서 만나자"고 인사했다.

–정기원 자동차과동문회 총무–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1월 24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광	1	조남간	50,000	광	10	이기성	20,000	기	14	이종업	100,000	기	20	오철안	20,000
광	1	홍남기	100,000	전	10	이용우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21	문길수	20,000
방	2	백재식	20,000	전	11	오연진	300,000	기	14	임화섭	50,000	기	21	한석원	100,000
자	3	곽상환	20,000	자	11	조길환	20,000	기	14	조용희	100,000	전	22	김용만	50,000
광	3	김유원	50,000	기	12	박용진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금	22	오윤영	50,000
광	3	서한수	70,000	전	12	신종국	50,000	기	15	정도연	100,000	기	22	조영백	100,000
전	3	손영주	20,000	기	12	임정규	100,000	기	16	김석래	20,000	기	23	박봉구	100,000
전	3	이우정	340,000	기	12	전종현	1,000,000	전	16	김희곤	50,000	기	23	하헌영	50,000
자	4	나채규	20,000	기	12	정찬목	50,000	기	16	박종필	20,000	금	24	박주석	50,000
자	4	남 득	20,000	방	12	조우찬	100,000	기	16	배달희	50,000	기	25	유병도	20,000
전	4	이준기	120,000	기	12	차정회	100,000	전	16	성열찬	20,000	기	26	전준구	20,000
방	5	민경식	50,000	기	12	한창원	100,000	금	16	여헌구	50,000	기	29	최영묵	50,000
방	5	윤대진	100,000	기	13	송문수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31	권오진	100,000
광	7	이동승	20,000	기	13	송승용	5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자	32	장규덕	50,000
방	8	김종헌	20,000	기	13	이창현	5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8	손영남	100,000	기	13	황규성	50,000	기	16	이진구	20,000	전	36	이중선	1,000,000
자	8	연락바람	100,000	기	14	김근식	50,000	전	16	장보환	20,000	밀링	52	권오완	20,000
화	8	이장수	50,000	기	14	김동안	20,000	기	16	최현주	50,000	전	54	이관형	50,000
전	8	임헌표	50,000	화	14	김선중	20,000	전	16	한흥교	350,000	단체		13회동문회	100,000
기	9	김범우	40,000	기	14	남상복	100,000	기	17	신충현	20,000			14회동문회	5,500,000
기	9	김용국	20,000	기	14	박광수	100,000	기	17	이대연	30,000			서산.태안동문회	500,000
자	9	박동권	20,000	전	14	백00(연락바람)	20,000	기	17	장세정	50,000			충심회	1,000,000
전	9	오옥균	20,000	기	14	백채준	100,000	기	18	윤병진	20,000			충우회	200,000
전	9	조부춘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9	배영환	40,000				
광	10	안주현	50,000	화	14	윤재중	100,000	기	20	박경하	200,000				

청심회(방직과 9회) 연회비

방	9	권병근	20,000
방	9	김순규	20,000
방	9	김정곤	20,000
방	9	노태평	20,000
방	9	박천길	20,000
방	9	송병전	20,000
방	9	송진헌	20,000
방	9	우창배	20,000
방	9	이주경	20,000
방	9	조동민	20,000
방	9	최재일	20,000
방	9	한공수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동문회보 발행 중단은 최악의 수순, 고비 넘겨야"

총동문회 고문 및 자문위원, 집행부 간담회 의견 개진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11월 9일 저녁 6시부터 유성 탐라돌구이식당에서 총동문회 고문 및 자문위원, 집행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오응수, 송주영, 백운길, 안병욱 고문(1회)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이원승 고문(8회) 이장수 자문위원(8회) 신도성 편집위원장(8회), 강신열 총동문회장(14회) 백채준 선임부회장(14회) 한흥교 사무총장(16회) 김흥순 재정국장(26회) 이진혁 사무국장(30회)이 참석했다.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신열 회장=진작 모셨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늦어 죄송하다. 총동문회 운영이 어려워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타개책을 세우려고 한다.

▲한흥교 사무총장=총동문회 운영기금이 바닥이 났다. 11월 말쯤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총동문회 비축자금 5천만원을 사용하여 동문회보를 계속 발행하는 방안>과 <동문회보를 연회보로 축소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한다.

▲송주영 고문= 가용 돈이 1200만원이라고…현 집행부는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나? 비축자금 5천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흥교 사무총장= 9월에 동문 임원, 이사분들께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작년 동기 4,500만 원에 비해 반도 못 미친다.

▲송주영 고문=회장 취임 후 8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 뭐했나?

▲김흥순 재정국장(26회)=저희 입장에서는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가니까 중간에 낀 세대로서 디지털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밴드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안병욱 고문=동문회는 애착보다 돈을 먼저 내야 한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 회보 발행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잠시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송주영 고문=중단하고 다시 발행하기는 어렵다. 4년 전에도 일부에서 밴드를 만들고 회보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슬기롭게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이원승 고문=어려운 동문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서한수 자문위원장=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활한 소통이 아쉽다. 난국을 타개하는데 어떤 방법론이 있는가 고심하고 미리 회장단을 비롯해 집행부가 대책을 세워놓고 안건을 제시해야 한다.

▲강신열 회장=오늘 좋은 의견 들었다. 최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 <끝>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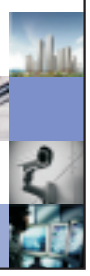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마 禎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 친구, 동생 여러분!

우리 동문회보는 지금까지 개미군단의 십시일반 성금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잇따라 열지 못함에 따라 회보발행에 비상이 걸렸어요!

동문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려요!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시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